사설



김 윤 미

시인

이십대 청춘, 매일 책을 머리에 베고 잠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용돈이 들 어오거나 아르바이트 월급이 들어오 는 날이면 제일 먼저 서점으로 달려 가 책을 샀다. 그리고는 첫 페이지에 언제, 어디에서, 왜 이 책을 사게 되 었는지 기록했다. 책을 읽어 내려가 면서 심장과 맞닿는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덧붙여진 나의 생각을 귀퉁이에 새겨 넣곤 했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책을 꺼내어 보 면 그 시간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 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일상을 보냈 는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가히 책들과 함께 의식이 화시켜 받아들이는 시간일 것이다.

미래의 꿈을 과거에 묻다

흘러갔던 시기라 하여도 과언이 아 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유독 이사가 잦았던 탓에 어느 순간부터는 책이 가장 큰 짐이 되었다. 결국 서울에서 작은 자취방을 구하고 잠시 책들을 빈 창고에 은닉시켰다. 그런데 다음 해 태풍으로 그 창고가 물에 잠겼다. 소식을 접하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 었다. 청춘이 수장 당한 것 같은 상 실감으로 내내 아팠다.

지난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라고 한다.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는 과거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세상이다. 지난 기억은 사건 들 사이에서 경험했던 감정을 넘어 서 미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근간이 된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과정이 란 잊는 것이 아닌 몽우리가 꽃으로 피어날 때까지 바라보듯 기억을 발

아픈 기억은 유독 오래 남고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해도 불쑥 불쑥 마 주하게 된다. 저마다 기억을 발화하 는 방식은 다를 것이다. 수많은 예술 가들은 다양한 그들만의 방식으로 애써 기억을 표출하고 기록한다.

나라의 기억은 어떠한가. 아픈 기억 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아픔을 기억하 고 반성하며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 었다. 지난 역사가 현재의 삶에 피해 를 주지는 않지만 내일을 예견하는 영 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픈 역 사, 재앙과도 같은 인재, 우리가 끝끝 내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비극을 잊지 않고 또 한 번 미래를 꿈꾸기 위한 약 속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기억과 망 각, 그 간극사이에서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면 위에 던 지는 작은 돌멩이의 파장처럼 망각을 경고하는 기억의 문화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따금 지난날들을 되돌아볼 때면 어김없이 물에 잠긴 책들이 떠오르 고 이내 눅눅해진 그 시간들이 습기 를 머금고 들러붙는다. 시간은 되돌 릴 수 없으니 책들을 무거운 짐으로 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함께 마음이 아려오는 것, 아픔의 언 저리가 짐작되어 심장이 저릿한 것, 시시해 보여도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올해도 매화 는 피었건만 세계는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과 방법 을 찾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하루치의 기억이 쌓였다.

치부했던 그때의 나를 후회해도 소 용없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가설은 때때로 뇌리를 스쳐지나가고 미련한 질문들을 던지곤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리석어보이는 질문들이 나에 게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

노지감귤 품질 향상 키워드는 '간벌'

열린마당



강 병 수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장

올해 초 경기둔화로 인해 감귤소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농업인단체별 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을 방문해 감귤 홍보 및 판매행사를 벌였다. 행 사를 통해 바라본 소비지에서의 반응 은 '맛있는 감귤은 구매하겠다'라는 것이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어떻 게 하면 맛있는 감귤을 생산할 수 있 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감귤의 당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과실성숙도, 일사량, 토양피복, 나무 높이, 일조시간, 결과지 엽수에 영향 을 받는다. 당도를 높이는 요인을 확 보하려면 최우선적으로 감귤원의 환 경을 좋은 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간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간벌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감귤나 무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면 감귤나 무와 토양표면에 햇빛이 비치는 양 이 많아져 광합성 증가, 자외선 살균 효과, 토양온도 상승 등으로 노지감 귤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간벌을 해서 작업공간이 확보된 감귤원에서는 병해충 방제, 수확 등 농작업을 실시할 때 밀식된 감귤원 보다 손쉽게 정밀한 관리가 이뤄져 노동력이 절감되고 투입된 기술의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맛 있는 감귤의 요구도가 높은 시대가 도 래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비파괴당 도기로 선별한 고품질 브랜드감귤은 높은 가격을 받으며 출하되고 있다.

당도는 높고 산함량이 낮은 감귤을 생산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 라도 감귤 소비물량과 가격형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품질 감귤 생 산을 위해서 밀식감귤원에 대한 1/2 간벌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어떤 인물이…

오는 26일까지 접수

○…제주도개발공사 제11대 사장 공개모집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 추천위원회는 11일부터 오는 26일 까지 사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의 결했으며 1차 서류심사(3월 4일) 와 2차 면접심사(3월 11일)를 거 쳐 최종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제 주도지사에게 복수 추천할 예정.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앞 으로 신원조회 기간과 제주도의 회 인사청문회 준비 일정, 4·15 총선 등을 감안하면 4~5월이 돼 야 신임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 인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신종 코로나' 극복 강조

○…제주지역 관광인들이 신종 코 로나 여파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 피해 극복에 앞장서자고 강조.

제주도관광협회는 11일 보도자 료를 통해 "최근 제주도는 극약처 방으로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을

조치했다"며 "제주가 청정지역임 을 사수하고 신종 코로나 공포가 사라지면 관광객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피력. 도관광협회는 "도 차원에서 긴 급대책을 세우고 있음에 따라 관 광업계도 능동적 자구 노력이 필 요하다"고 첨언. 백금탁기자

직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서귀포시가 신종 코로나 확산 에 따라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 고 시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직영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해 눈길.

요금 감면 방안은 무료시간을 최초 30분 초과에서 1시간 초과로 30분 연장하고, 요금을 50%로 감 면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은 12일부 터 3월말까지 시행.

시 관계자는 "공영유료주차장 요금감면이 신종 코로나로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설명. 이태윤기자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실질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가 내일 (13일) 출범합니다. 범도민협의 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 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관 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 도민협의체가 어떤 대책을 내놓 을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경제·관광산업·건설 경기·1차산업·지역사회·사회복 지·기획조정분과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해 본 격 과제 발굴에 착수합니다. 각 분과별로 관련 기관·단체, 출자출 연기관, 전문가 등 산학연관이 함 께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범도민협의체는 분과별 피해 상황 파악과 단기·장기 과 제, 정부 건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우선 피해 대

응에 주력하고, 이후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분과별 도출된 결과들은 수시로 모니터링, 총괄조정협의회 를 통해 분과별 제시된 과제들 중 우선순위 조정, 예산 재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제주경제가 신 종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입니 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여파로 관 광객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총 입도객은 1만 99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7848명)보다 47.3%나 줄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예약취소율이 80 ~90%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 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범도민협 의체는 앞으로 지역경제에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저 난관을 극 복한다고 소리만 요란한 보여주기 식 대책에 그쳐선 안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교사 합격 번복… 행정 신뢰 추락

제주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 불거지면서 교육행정 신뢰도를 합격자가 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 생해 충격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2020 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 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명 단을 발표했다가 시험 점수 합산과 정에서 잘못을 확인하고 수 시간만 에 재공고했습니다. 이날 재공고로 체육과목 합격자 중 1명이 불합격 처리됐고, 불합격했던 1명이 합격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담당 자가 전산시스템에 점수 입력 과정 에서 2차시험을 본 14명의 '실기평 가'점수를 누락해 합격자가 바뀐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더군다나 교사를 뽑는 중차대한 업무를 최소 한 두번, 세번 확인에다 직원간 이 중 확인이라는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10일 이번 업무 처 리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해 당 응시자와 가족들의 항의와 임 용시험 실기평가의 공정성 논란까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시험 당사자는 실기평가 시 체 육 종목별 수행결과에 따른 채점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채점기록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실 기평가의 경우 평가위원별로 일정 기준으로 평가했고, 관련자료는 비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한 이석 문 교육감은 10일 주간회의에서 "이번 일은 교육 행정 신뢰의 문 제이기에 엄중하게 받아들여 반 면교사로 삼겠다"며 "자체 감사 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 악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갈수록 심해지는 구직난 속에 공무원 취직을 희망 하는 젊은이들과 교사 임용을 준 비하는 많은 준비생들에겐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 신뢰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재 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卫

이용우(前 삼성생명 상무) 아버지 고부이공 동규(요셉·제주관광 창시자· 前 제주라이온스클럽 회장·향년 100세) 께서 서기 2020년 2월 10일 22시 1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12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0년 2월 13일(목요일) 오전 9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 장례미사: 동문성당 오전 10시 지:해안동 선영

부 인 김경림(맥리)

▶ 장

며느리 유은영(레지나) 아 들 이용우 용진做 김미현(왜앤) 용림때 고은경(엘리씨) 손 부 박지선 손 자 이상엽

상철(唱點) 상훈때요한 손 녀 이상화

연지(소파아) 연주(레지나)

※ 연락처: 이용우 010-5326-9670 이용림 010-4691-4441 유은영 010-4274-1849 김미현 010-3007-8624 고은경 010-9840-4441

부 $\overline{\mathcal{I}}$

한동훈(경찰청 감사관실) 아버지 청주한공 상준(세종해외관광여행사 대표·향년 65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11일 00시 0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13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0년 2월 14일(금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대흘리 선영

부 인정희열

아들한동훈 며느리 이 경 진

> 승훈 김은주

이경진 010-8225-0317

김은주 010-3697-6922

※ 연락처 : 한동훈 010-2514-6084 한승훈 010-8666-6084 정희열 010-3692-608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부윤진(향년 8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 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12일

김 정 숙 인 부 성 철 들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의 규 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으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

서는 공고 기간 내에 이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9, 201동 1604호(상현동만현미을2단지)

2020년 2월 12일

1. 분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60-1번지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 협의후 개장 (무 연 고) 화장후 납골당안치

8. 기 타: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 순환로 246

위공고인: 김종엽, 연락처 010-7172-1524

대 위 : 상호 : (대궁천사 특수의전)

대 표: 고희석, 연락처 010-5345-4089

5. 개장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며 느 리

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토지정리

6.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7. 공고기간: 3개월

권 은 진

712-3644, 782-3644

단열

010-4690-3636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